

광주인자위, 종합평가 A등급 4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쾌거

‘2022 지역인자위의 날’ 표창
수급조사·혁신 프로젝트 호평
미스매치 해소·고용률 제고 기여

광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이하 광주인자위)가 지난 16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2022년 지역인자위의 날’ 행사에서 2021년도 성과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매년 17개 지역인자위의 사업성과를 평가해 우수 인자위를 선정한다.

광주인자위는 2021년 성과평가에서 종합평가 A등급을 받아 2018년부터 4년 연속 우수인자위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뤘다.

광주인자위는 이날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상인 기관 표창과 함께 각 부문별 포상에서 ‘수급조사·분석’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데 이어 문성연 책임연구원이 ‘기업훈련지원사업 부문’에서 사무국 우수 전담자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다.

이번 성과평가는 전국 17개 인자위의 위원회 운영, 수급조사 분석, 인력양성 사업 성과, 네트워킹, 조직관리 등의 인력양성사업과 기업훈련 지원,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의 2021년도 성과



광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지난 16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2022년 지역인자위의 날’ 행사에서 2021년도 성과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다. /광주상의 제공

를 분석해 평가했으며, 광주인자위는 모든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광주인자위는 지난 2013년 출범한 이래 올해는 ‘신산업·지역형 일자리 창출 및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라는 목표로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기업훈련지원, 지역혁신프로젝트, 산업구조변화 대응 특화훈련 등 인력양성사업을 수행 중에 있다.

또한 매년 지역기업 및 산업의 인력수요를 기

반으로 맞춤형 훈련을 제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광주지역 고용률을 제고하는 인력양성 컨트론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최종만 광주인자위 공동위원장은 “4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된 것은 그동안 광주인자위 위원 및 행사사업 관계자 모두가 협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광주지역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고용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연수 기자

한전KDN, 디지털 인재육성 교육 확대

동신대서 ‘전력IT개론’ 강의

한전KDN이 2022년 하반기 지역 대학생들 대상으로 디지털 인재 육성을 위한 ‘전력IT개론’ 강의를 확대 시행한다.

한전KDN은 지난 2017년부터 산학협력 업무협약(MOU)으로 지역 우수 인재 육성과 지역대학 발전을 위한 교육 및 산업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교수와 학생들의 현장 연수와 연구 지원 등 지식 교류 네트워크를 확장해왔다.

더불어 매년 현장 실무 경험 10년 이상의 직원들로 강사진을 구성해 강의와 함께 회사 소개 및 취업 소개 등을 목표해양대학교에서 진

행했다.

이 교육은 참여 대학생들의 호응도가 높아짐에 따라 해당 과정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하반기에는 동신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는 22일부터 12월 초까지 약 3개월 동안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과정은 전력 정보시스템, 정보보안, 네트워크, 클라우드 기반 오픈소스 SW 등 최신의 전력IT기술 전반의 12개 주제로 한전KDN 직원들이 직접 강사로 참여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특별 대화 시간 등 다양한 형식의 소통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한다.

한전KDN 관계자는 “전력IT개론 강의가 지

역대학과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ESG경영 실천과 정부의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 정책 방향에 부응한 지속 가능한 산학협력 생태계 구축을 위해 한전KDN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전KDN은 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턴십 시행과 대학생 홍보대사, SW경진대회, 발전기금 기부 등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전력ICT 인재 육성 프로그램 대상 확대 등 ‘에너지ICT 플랫폼 전문기업’으로서 공적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오지현 기자

위니아, 2023년형 덩채 출시 기념전

‘색의 조각들’ 주제 설치 미술
프렌치 냉장고 아트에디션도

위니아가 2023년형 덩채 출시를 기념해 ‘색의 조각들’을 주제로 특별 기획전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대우위니아타워 종합R&D센터 2층에 위치한 W갤러리에서 오는 10월 31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는 강렬한 색감과 오감을 자극하는 작품으로 주목받는 크리에이티브 그룹 ‘308 아트크루’와 함께 진행한다.

2023년형 덩채를 비롯해 다양한 디자인의 덩채를 활용해 창의적인 미디어아트와 공간각적인 설치 미술을 완성했다.

이와 함께 특별 기획전에는 ‘위니아 프렌치 냉장고 아트 에디션’도 함께 전시돼 기획전의 의미를 더했다. 이 제품은 실제 미술 작품을 디지털 프린팅 기법을 통해 냉장고에 그대로 담아낸 것으로, 냉장고 외관 디자인에 ‘자연의 흐름에서 피고 지는 삶’, ‘인간 내면에 있는 모습’ 등을 다양한 색상과 모양



위니아는 2023년형 덩채 출시를 기념해 ‘색의 조각들’을 주제로 경기도 성남시 대우위니아타워 종합R&D센터 2층 W갤러리에서 오는 10월까지 특별 기획전을 실시한다. /위니아 제공

의 꽃으로 그려낸 작품을 담아냈다. 특히 위니아만의 기술을 통해 그림 속 붓터치의 질감까지 그대로 구현해 마치 하나의 예술 작품과 같은 느낌을 선사해 보는 이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전한다.

최지혜 위니아 브랜드 마케팅 담당은 “이번 특별 기획전은 덩채의 다양한 특장점을 감각적이고 창의적인 예술 작품으로 재해석해 조명했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우윳값 결정체계 ‘용도별 차등가격제’로 개편

낙농진흥회, 만장일치 의결

실무협의체 운영...내년 시행

우윳가격 결정체도가 내년부터 ‘생산비 연동제’에서 ‘용도별 차등가격제’로 개편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낙농진흥회가 지난 16일 이사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낙농제도 개편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통과된 안건에는 새 제도의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낙농가, 유업체, 정부 등이 참여한 실무협의체를 운영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실무협의체 협상을 거쳐 새 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낙농진흥회 이사회의 개의 조건은 ‘재적이사 과반 참석’, 의결 조건은 ‘재적이사 과반 찬성’으로 정관에 명시한다는 내용도 안건에 포함됐다.

이로써 정부가 1년 넘게 추진해온 국내 낙농제도 개편이 비로소 공식화됐다. 낙농진흥회 이사회가 채택한 원유가격 결정 체계는 사실상 업계의 표준이 되기 때문이다.

현행 생산비 연동제는 원유(原乳·우유 원료)의 가격을 낙농가의 생산비 증감에 따라서만 결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 제도가 우유 수요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원유 가격을 끌어올리기만 한다고 보고 작년 8월부터 개편을 추진해왔다.

대안으로 제시된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누고 음용유 가격은 현 수준을 유지하되 가공유 가격은 더 낮게 책정하

는 것이다.

도입될 경우 유업체에서 가공유를 더 싼값에 사들여 국산 유가공 제품의 가격이 낮아지고, 값싼 수입산과의 경쟁에서 버틸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장기적으로는 우유 자급률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당초 낙농육우협회를 비롯한 낙농가 단체는 농가 소득이 줄어들 수 있다며 정부안에 강하게 반대했다.

이들은 제도 개편을 처음 추진한 김현수 전 농식품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하고 전국 각지에서 ‘우유 반납 시위’를 벌이는 등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다.

하지만 정부의 끈질긴 설득 끝에 이달 초 입장을 선회하고 제도 개편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이번 이사회 의결로 국내산 가공용 원유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유가공품 시장 진출이 늘어날 것”이라며 “또 국내산 원유를 활용한 프리미엄 유제품이 많아져 소비자 선택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낙농진흥회는 아울러 올해 원유가격을 정하기 위해 오는 20일 첫 회의를 열고 협상에 돌입하기로 합의했다. 협상위에는 생산자와 유업체 측 인사가 동수로 참여한다.

아직 새로운 제도의 구체적 실행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만큼 올해 원유가격은 기존의 생산비 연동제에 따라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



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은 최근 무안군에 소재한 국가철도공단 안전문화교육관에서 공사감독 및 현장관계자를 대상으로 2차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했다. /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제공

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안전체험교육

공사감독·현장관계자 대상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은 최근 무안군에 소재한 국가철도공단 안전문화교육관에서 공사감독 및 현장관계자를 대상으로 2차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안전체험교육은 1차 교육에 이어 공사감독,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등 20명이 참석해 안전교육 이론뿐만 아니라 터널 및 교량 안전체험, 안전도 충격체험, 가설비계 안전체험, 전기안전체험 등 건설현장 맞춤형 체험식 교육을

진행해 교육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김신환 단장은 “안전은 비용과 속도에 양보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영산강사업단의 공사감독 및 현장관계자들은 위험성평가를 통한 안전 점검, 개인보호구 착용 생활화,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등을 통한 ‘안전사고 재해율 제로’를 다시 한번 다짐했다. /오지현 기자

‘생산량 감소’ 농산물 가격 더 오른다

올해 여름 폭염과 폭우로 인해 농산물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9월에도 태풍 피해 등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8일 ‘농업관측 9월호 엇근채소’ 보고서를 통해 이달 배추와 당근, 무, 양배추 등의 도매가격이 지난달에 비해 더 상승한다고 내다봤다.

구체적으로 배추의 경우 이달 도매가격은 10kg에 2만원으로, 지난달 1만4,650원보다 36.5% 상승한다고 예측했다. 이는 1년 전 같은 달의 1만1,600원과 비교하면 1.7배다.

배추 도매가격 상승은 생산량 감소에 따른 것이다. 연구원은 올해 여름 비가 자주 내리고 일조 시간이 줄면서 병해가 확산해 배추 작황이 평년보다 부진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이달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에 상륙하면서 많은 비가 내려 병해가 더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

연구원은 날씨 탓에 다른 농산물도 생산량이 줄면서 가격이 지난달보다 더 비싸진다고 예상했다.

당근은 20kg에 6만원으로 지난달 4만4,790원과 비교해 34.0% 상승한다고 예측했다. 1년 전 2만8,920원에 비하면 약 2배로 오르는 셈이다.

또 무 도매가격은 이달 20kg에 2만4,000원으로 지난달 2만2,020원과 비교해 9.0% 오르고, 양배추 도매가격은 8kg에 7,500원으로 지난달 7,140원에 비해 5.0%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1년 전 도매가격과 비교하면 무는 2.6배, 양배추는 2배 수준이다. /연합뉴스